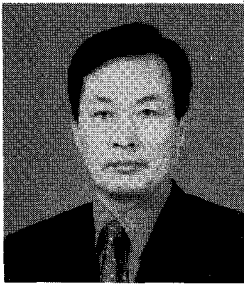


## 중계입식 줄이고 적절한 강제한우로 노계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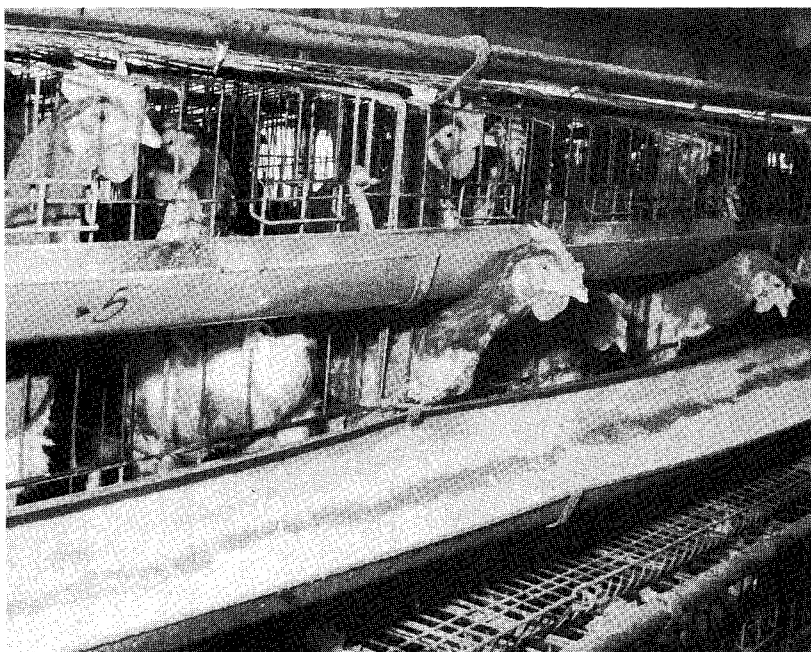
오 정 길  
(대구경북도지회장)

**시**작은 언제나 새롭고 우리를 설레게 하며, 희망을 갖게 한다. 이제 2004년 갑신년(甲申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채란업이 지난 2년 동안의 불경기를 떨쳐 버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문제점과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먼저, 우리 업계의 금년 화두는 노계 처리 문제일 것이다. 1960-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산란계는 계란과 닭고기를 공급하는 겸용계로써 산란을 마친 닭은 육성비보다도 비싸게 팔렸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육계와 노계가 공존하며 육성비에 가까운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시장에서 도계가 금지되고 외국계 치킨점이 늘어나면서 노계는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이게 되었으며, 노계의 가격도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2000년부터는 노계 정육으로 만든 소시지의 소비가 줄고 돼지고기로 만든 햄의 소비가 늘면서 노계는 식품으로서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노계에 대한 향수, 과거의 노계 값에 대한 미련이나, 명절이면 닭 값이 좀 상승할까 하는 막연한 기대는 버렸으면 한다.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값어치도 떨어진다. 물론 지금도 일부 부위는 고급육으로 판매된다. 따라서, 날개, 가슴살, 모래집 등은 시판 및 수출을 하고 계정육은 소시지 원료로 쓰며, 남은 노계는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조림이나 육골분을 만들어서 사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계를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도 남은 닭은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사료나 비료는 가공비가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닭 한 마리를 가공해서 사료나 비료를 만들어 판매할 때 판매금액이 가공비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농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처럼 이제는 노계를 처리하는데 오히려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노계 처리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최근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전라도의 어느 농가는 30,000수의 노계를 개 사육농장에 무료로 나누어주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고, 경북의 어느 농가는 5,000수의 계군을 환우한 다음에 시판을 하다가 다시 환우하여 시판으로 처리했으며, 경남의 50,000수 계군의 대형농장에서는 매일 500마리씩 계분에 섞어 발효처리 하거나 소각작업을 하고 그리고 개 사육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사례는 노계 처리 기간도 길면서 비용도 많이 들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대량의 노계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준비를 해야 한다. 사료나 비료화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건설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학계와 업계, 외국의 사례를 모아 정부나 농협에서 추진하고 비용은 농가, 농협, 사료업체, 부화장, 관련단체 모두가 함께 부담하며 운영은 양계조합에서 맡았으면 한다.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노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양계농가에서는 적절한 강제환우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강제환우를 실시하면 닭의 항체 감소와 살모넬라균의 체내확산, 케이지 이용효율 저하, 질이 떨어지는 계란 생산과 시장에서 특란과 작은 계란의 구색이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강제 환우를 억제하여 왔다.

그러나 강제환우를 적절히 이용하면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우선 60주령에 실시하여 65주령까지 닭을 회복시킨 후 24-30주간 동안 산란을 할 수 있다 즉, 90주령부터 100주령까지 산란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 수당 140-180개까지 계란을 더 생산할 수 있다. 1기 때보다 2기 때는 사료를 약간 더 섭취하더라도 특란과 왕란이 많이 생산되고 육성비가 절감되므로 채란농가에서는 경제적

이다. 또한 60주령부터 난각이 약해질 때 강제 환우를 실시하므로 상인들과의 마찰도 줄어들 것이다. 질병 문제에서도 실시 전에 질병이 심했거나 체중이 약하거나 1기 때 산란성적이 부진한 닭들은 환우를 하지 말고 건강한 계군만 환우를 실시하며 회복기와 실시 전후에 수의사와 의논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고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노계 닭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년에 노계 처리해야 할 닭들은 환우를 하지 않을 경우 약 2,500만수에 서 3,000만수에 이른다. 산란계 농장 전부가 환우를 실시하게 되면 노계 출하 마리 수는 약 30% 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노계 처리에 숨통이 트일 것이며 계란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닭 한 마리가 30%

더 산란하므로 자원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앞으로도 노계 처리문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 산란종계도 지금까지는 45만수가 적정 수준이라 하였지만 환우를 많이 실시하면 40만수 이하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종계 노계도 그 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제까지 강제 환우는 농가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았고 질병에 노출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부터라도 종계장이나 사료회사 학계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하고 경제적인 환우가 이루어진다면 2004년의 채란업계의 경기는 계란 값이 생산비를 상회하고 노계의 출하도 제때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양계장 주인과 닭들이 함께 활짝 웃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양계**

깨끗하게 청소하여 질병에서 해방되자!

## 자동화 계사 청소대행

- 원적외선 산업 (맥반석, 견운모)
- 중추이송 케이지 주문제작

### 동 광 공 업

대표 : 최 성 태

사무실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전 화 : (055)374-8461~2, 팩 스 : (055)375-8461

휴대폰 : 011-374-8461~2